나를 뛰어넘다 SmArt 동강대학
http://www.dkc.ac.kr
입학상담 : 062-520-2555 동강대학

光州日報

당신의 재산증식 동반자
정기예금 1년 4.43%(복리)
동양저축은행 | 226-0180

광주 -1/7℃ 목포 0/6℃ 여수 1/8℃

단기 4343년 (음력 11월 2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광고 문의 (062)227-9600 kwangju.co.kr 제18847호 1판 2010년 12월 7일 화요일

언쟁 6일 오전 10시30분 광주시 북구 테크노파크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내 귀빈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한 강운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상대방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광주·전남 상생협력 실종

강운태-박준영 첫 만남 공항해법 갈등만…향후 현안 논의 험로 예고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 문제가 광주·전남의 상생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부상하고 있다. 다른 시·도에서는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공동혁신도시 조성까지 해낸 광주·전남이 정부의 '호남권 원 에어포트(One Airport) 정책' 앞에서 급속히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3면〉

6일 오전 광주시 북구 테크노파크 과학기술교류센터에서 열린 '호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강운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따로 자리를 만들어 민선 5기 출범 이후 첫 회동을 가졌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상생 방안이 아닌 '자기 주장'만 되풀이됐고, 어렵사리 마련된 자리에 비해 성과물은 기대 이하였다.

두 수장의 의견 차는 회담 전부터 노출됐다. 광역경제권사업의 문제점, 김완주 전북도지사 불참 이유 등에 대해 차분히 언급하던 두 수장은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태도가 급변했다.

포문은 박 지사가 먼저 열었다. 박 지사는 "서남권 중심공항은 무안공항으로, 이는 광주·전남이 모두 동의해 결정된 국가정책"이라며 "최근 광주시가 국내선 이전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이는 미래를 보고 투자한 국가정책을 거스르는 것이며, 광주시가 제기하는 방법 자체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박 지사는 또 "무안공항 이용자가 2만명이라고 하는데 올해 이미 9만명을 넘었다"며 "광주공항 이전에 문제가 있다면 협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한 뒤 시·도민들에게 알렸어야 하는데 광주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도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가감 없이 밝혔다.

강 시장은 "광주공항과 무안공항 문제는 '상생'이 가능하다"며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의 상생을 위한 협의기구를 만들어 지난 2007년 정부가 약속한 무안공항 활성화 방안을 촉구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와 함께 "정부가 무안공항 개항에 앞서 제주공항에 버금가는 공항으로 만들기 위해 국제선 확대나 리무진버스 운행, 통행료 감면 등을 약속했지만 지켜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광주·전남이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이후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 문제를 논의하자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담 내내 두 수장은 때로는 얼굴을 붉히고, 손짓까지 동원해가며 상대방을 설득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런 합의점도 찾지 못했다. 30분 뒤 이들 두 수장이 호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제3차 회의가 열리는 장소로 이동하며 첫 회동은 마무리됐다.

박 지사는 회동 직후 강 시장의 '상생기구' 제안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향후 논의과정도 순탄치 않음을 예고했다. 공동혁신도시 조성, R&D 특구, 광역철도, 호남고속철도, 2012여수엑스포,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등 각종 현안을 앞둔 광주·전남이 공항 문제로 벌어진 갈등의 골을 메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당신만을 위한 비즈니스 호텔
* 런치 스페셜 - 해물지리탕, 추어탕, 육개장
* 특선해물뷔페 - 35,000
특별할인
• 객 실 : 전 객실 50% 할인
• 웨딩홀 : 웨딩패키지 할인 숙박권 증정
• 돌잔치 : 숙박권증정 및 패키지 할인
칠순연 • 각종 세미나 (대 • 중 • 소 연회장 완비)
히딩크관광호텔
예약문의 ☎(062) 227-8500
www.hiddinkhotel.com

학교설립 56주년(1954~2010)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정시 모집 [가]군 원서접수 12월 17일~22일
보육교사교육원 12월 1일~1월7일
입학문의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우암학원 창학 60주년
출발 2010, 제2의 창학원년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북한 도발하면 자위권 맞대응"

김관진 장관 지침 시달

김관진 국방장관은 6일 "북한의 선(先) 도발시 자위권 차원으로 대응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장관 지침이 하달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 출입기자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하고 "자위권은 적이 우리에게 선도발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응징하는 개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적의 도발 의지가 꺾일 때까지가 자위권 행사의 범위다.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위권 발동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내렸기 때문에 교전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할것인지, 별도로 독립시킬 것인지는 실무진이 검토하겠지만 교전규칙은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달 중으로 이뤄질 장성 진급 인사와 관련해서는 "인사는 군사전문성이 있는 능력 위주로 하고, 정상적인 인사이며, 외부의 청탁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3가지 원칙"이라며 "가급적 빨리 단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제1회 광주·전남 초중생 영어평가대회

12월 9일 접수마감

초·중학생 자녀들의 영어실력을 키우고 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십시오.
광주일보는 한국토익위원회와 공동주최하고, 영어교육학회가 후원하는 제1회 광주·전남 초·중학생 영어평가대회를 개최합니다.
미국 ETS와 연계, 28년간 한국 토익시험을 주관하는 국내 최대평가 전문기관인 한국토익위원회와 YBM-sisa 가 시험 전과정을 총괄, 최고의 공신력있는 대회가 될 것입니다.
경시대회에 참가한 모든 학생들에게는 개인의 성적분석표와 전국순위, 상관관계표를 통한 TOEIC 예상점수 예측 등이 상세하게 분석돼 개별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향후 영어성적을 향상시키고 TOEIC 시험을 준비 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학부모, 선생님, 학원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 접수일자 : 11월 15일 ~ 12월 9일
■ 신청방법 : 광주일보 홈페이지(www.kwangju.co.kr)
■ 대 상 : 광주·전남 초·중학생(초1학년~6학년, 중1학년~3학년)
■ 경시대회 일자 : 12월 19일(일) 오전10시
■ 경시대회 장소 : 광주·전남 27개 시·군·구 고사장 (추후통보)
■ 평가 과목 및 참가 : 초등부 - JET (22,000원)
중등부 - TOEIC bridge (29,000원)
■ 특 전 : 시·군·구별 성적우수자 뉴질랜드 1개월 어학연수/장학금
■ 문 의 : 광주일보사 062-220-0555

光州日報社

2012 대입 수시 62%·입학사정관 122개대

대교협 시행계획 발표

내년에 치러지는 2012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전체 정원의 62% 이상을 수시모집에서 선발한다. 또 고사장이 지역별로 설치돼 지방 수험생들이 입시불편을 덜게 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수 고려대 총장)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국 200개 4년제 대학의 2012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6일 발표했다. 〈관련기사 7·8면〉

계획에 따르면 2012학년도 총 모집인원은 38만2773명이며 이 가운데 수시모집에서 62.1%인 23만7640명을, 정시에서 37.9%인 14만5133명을 뽑는다. 수시모집 비율은 올해(60.7%)에 비해 1.4% 포인트 증가했다.

입학사정관 전형을 시행하는 대학은 올해 118곳(3만6896명)에서 내년 122곳(4만1250명)으로 소폭 늘어난다. 전체 모집인원의 10.8%를 입학사정관제로 뽑게 되는 것이다. 입학사정관 전형 원서 접수는 다른 전형보다 한 달 정도 빠른 내년 8월1일부터 시작된다. 또 내년부터는 각 대학이 논술, 면접 등 대학별 고사를 실시할 때 원서접수 전에 시험일자, 시간을 미리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 수험생들이 수도권 등지를 오가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고사장을 지역별로 따로 설치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2012학년도 부터 수시모집이 끝나고 6일간의 미등록 충원기간(2011년 12월15~20일)이 생긴다. 예년에는 대학들이 임의로 추가모집을 했으나, 공식 추가 모집이 가능해진 셈이다.

수시모집의 전형 요소별로는 일반전형 인문계열 기준으로 학생부를 100% 반영하는 대학이 90곳으로 올해보다 6곳 늘었고 전반적으로 반영 비중도 높아졌다. 정시모집에서는 학생부 100% 반영 대학이 6곳, 80% 이상 100% 미만 1곳, 60% 이상 80% 미만 6곳, 40% 이상 60% 미만 77곳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서 만나는 팝아트 '키스해링展' 내일 개막

내 꿈에 하나 더!
다양한 강의방법 (TV, 멀티미디어, 출석수업 등)
등록금이 저렴하다 (일반대학 1/10, 사이버대학 1/5)
연계전공 운영으로 "사회복지학사" 취득
내 꿈을 더하고 키우는 대학,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내 꿈에 plus-up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1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모집일자 : 2010. 12. 1(수) ~ 2011. 1. 12(수)
입학상담 | 광주전남지역대학 062)973-5100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knou.ac.kr) 참조